

이기는 삶

하나가 되는 길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그 때 그 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혼자서만 누리질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인(人)이라는 한자처럼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말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라고 외치지만,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화합하라는 이야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가 되려면 나의 주장을 꺾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옳다

고 하여 끝까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당장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더 멀리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 있다. 그 부속품은 모두 중요하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 없다. 그런데 이 부속품을 따로 떼어 놓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부속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부속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조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위와 역할까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의 부속품처럼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니의 요가교실**

##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마음에 의해서 피가 변하고 이 세상도 변한다. 생각의 물질로 인하여 공기가 변하고 이 세상 만물이 변한다. 지혜는 하나님의 기본이요, 무식을 벗어나야 악의 탈도 벗는다. 불경에는 인과법칙론이 있고,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다. 시대와 사람은 달라도 경전의 뜻은 같아야 진리이다. 나라의 의식을 꾸준히 버리면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때 영생의 신이 될 수 있다. 정신적 노력(자유율법)과 신체적 노력(유연성 있는 건강합 몸)으로 영생을 이룩하자!

**헤엄치는 물고기자세**  
**효능** : 등이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 자세.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몸 안에서 호르몬 분비 활발하게 도움.  
**동작①** : 등 대고 누워서 양팔은 가지런히 모으고, 두 손은 엄지가 안으로 가게 주먹을 쥐고 팔꿈치를 구부려 가슴에 댄다.  
**동작②** : 숨을 내쉬면서 양 팔꿈치로

바닥을 힘껏 밀어 가슴을 들고, 고개를 뒤로 젖혀 머리의 정수리를 바닥에 대려고 노력한다. 척추 뼈가 하나 하나 펴지는 느낌으로 한다. 20초 유지 5회.

**코브라자세**  
**효능** : 복근과 양목이 쭉 펴지면서 가슴을 펴 주는 자세이므로 폐 기능 향상에 탁월함.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항상 뒷목이 빠근한 사람, 앉아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 좋은 효과가 있다.  
**동작③** : 앞다리 자세로 다리를 꼭 퍼서 모으고 팔을 굽혀 손바닥을 가슴 옆에 놓는다. 턱은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5~10회 한다.  
**동작④** : 숨을 마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들어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올린다. 시선을 뒤쪽 하늘을 바라보듯이 숨을 5~10초 간 참는다. 숨을 내쉬면서 팔로 바닥을 미는 힘보다 배를 바닥에 붙이려는 힘이 강하도록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배, 가슴, 턱 손으로 바닥에 붙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다. 20초 유지 5회.  
**TIP**: 상반된 동작을 행함으로써 척추와 복근에 강한 자극이 온다. 발 뒷꿈치와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감(람)나무 정도령을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속세의 무리를 따르는 자는 죽으리라

격암유록 新해설 제13회

**未運論(一) 말운론**

嗚呼悲哉聖壽何短 호호비제성수하단  
 林出人怨無心 임출지인원무심  
 小頭無足飛火落地 소두무족비화락지  
 混沌之世 혼돈지세  
 天下聚合此世界 천하취합차세계  
 千祖一孫哀嗟呼 천조일손애차호

호호라 슬프도다! 성인(정도령)의 수명이 어찌 이리도 짧은가? 청림의 사람이 죽었도다. 원무심(怨無心)은 죽을사(死)자의 파자다. 임(林)은 양목(두감람나무의 사람)이며 5도 72궁과 6도 81궁 정도령을 말한다.

자세히 말하자면 72궁과 81궁이 81궁에서 합일이 되어 있으므로(실제로는 여인 한 분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합일된 81궁이다.) 6도 81궁 정도령의 죽음을 말한다. 세상 사람과 같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이것을 원시반본(原始返本)이라 한다. 하나님은 생명이요 빛이요 성령이다. 죄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항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now and here) 내 속에도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계신다.  
 소두무족(=천화天火)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온 세상이 혼돈스러우리라. 천하의 기운이 모여 합쳐지는 때 이 세계에서 천 조상 중 한 자손만 살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되니 슬프고 슬프도다.

柿謀者生衆謀者死 시모자생중모자사  
 隱居密室生活計 은거밀실생활계  
 弓乙乙避亂國 궁궁을을피란국

隨時大變 수시대변  
 彼枝此枝鳥不離枝 피지차지조불리지

감(람)나무(정도령)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속세의 무리를 따르는 자는 죽으리라.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있는 밀실에서 무극대도를 완성하시고 세상 사람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니 그분이 궁궁을을의 정도령이요 정도령을 만나 영생의 도를 닦아야 난(亂)을 피할 수 있다.  
 수시로 큰 변란이 일어나도 새처럼 이 가지 저 가지 옮겨 다니지 말고 감(람)나무(정도령)를 떠나지 마라.

**龍蛇魔動 용사마동**  
 三八相照黑霧漲天 삼팔상적 흑무창천  
 秋風如落彼克此負 추풍여락 피극차부  
 十室混沌四年何生 십실혼돈 사년하생  
 兵火往來何日休 병화왕래하일휴  
 劫人來詳解知 겁인래상해지  
 祭堂彼奪此散隱居 제당피탈 차산은거  
 四街路上 사가로상

마귀가 발동하여 남과 북이 삼팔선의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니 검은 안개 즉 포연(砲煙)이 자욱하여 하늘을 덮으니 추풍낙엽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저쪽(북)이 이기고 이쪽(남)이 진다. 십승의 나라가 온통 혼돈에 빠지니 그 4년을 어찌 살꼬? 오고가는 병화(전쟁)는 언제 그칠까? 인쇄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공군이 들어오면 상세히 이해하고 알리라. 절과 예배당도 저들에게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져 너거리 길 어디에서 숨어 살리라.

聖壽何短可憐人生 성수하단 가련인생  
 末世聖君湧天心 말세성군용천박  
 獸衆出人變心化 수출중인변심화  
 獄苦不忍逆天時 옥고불인역천시  
 善生惡死 審判日 선생악사심판일  
 死中求生有福子 사중구생유복자  
 是亦何運 지역하운  
 林將軍出運也 임장군출운야  
 天定此運亦悲運 천정차운역비운  
 十二神人各率神兵 십이신인 각솔신병  
 當數一二先天 당수일이천정  
 此數一四四之全田之數 차수일사사지전  
 전지수

성인의 목숨이 어찌 이리도 짧은가? 가련한 인생 어이할꼬? 말세성인은 하늘을 닮은 목인이다.  
 짐승 같은 인간들의 마음속을 드러내며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분이 액운을 당하여 옥고를 치르는데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하늘이 정해진 천시를 거스르게 된다. 선한 자란 살고 악한 자는 죽는 심판의 날이 닥칠 때도 죽을 가운데서 살아나는 복 있는 이가 있으니 이 역시 무슨 운인가? 동방의 목인(임장군)이 출현하는 운인데 하늘이 정한 운이지만 역시 슬픈 운이다. 하나님을 모신 두 신인이 먼저 천지공사를 하신데 첫 번째 정도령(5도72궁)과 두 번째 정도령(여인 한 분)이 그 두 분이냐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정도령(6도81궁)이 완성의 정도령(마귀를 이기신 완성의 삼위일체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어 있다.

新天新地別天地 신천신지별천지  
 先擇之人不受皆福 선택지인불수개복  
 中擇之人受福之人 중택지인수복지인

後入之人不福亡 후입지인불복망  
 用中生滯拖琴聲 용중생에포금성  
 淸歌一曲灑精神 청가일곡쇄정신  
 勿思十處十勝地 물사십처십승지  
 獨利在弓弓間 독리재궁궁간  
 申西兵四起 신유병사기  
 戌亥人多死 술해인다사  
 寅卯事可知 인묘사가지  
 辰巳聖人出 진사성인출  
 午未樂堂堂 오미낙堂堂

새 하늘 새 땅의 별천지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해서 다복을 받는 것은 아니며(先入者亡선입자망) 중간에 들어간 사람은 다 복을 받으며(中人者生중입자생) 마지막에 들어온 자는 복을 받지 못하니 죽으리라(末入者死말입자사).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들리는 거문고 타는 소리와 청아한 노래 소리에 씻은 듯 정신이 더욱 쾌락해지느니라. 십승의 삶이 이러하니 지리상의 십승지를 생각하지 마라.  
 오직 궁궁지간인 하늘나라 백십승에 이로움이 있느니라. 신유(申酉)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술해(戌亥)에 사람이 많이 죽으리라(영적인 말이다). 인묘(寅卯)가 되면 일이 어떻게 되어 가지를 알게 되리라. 진사(辰巳)에 성인(6도 81궁 정도령)이 출현하고 오미(午未)에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 Immortal Valley

### 고요한 아침(我針)의 신의(神醫), 무아진인(無我眞人) 정도령

**이 땅이 아프다.**  
 인공적으로 살상된 생명들이 너무나 많이 문했다. 무더위에 폐사한 닭 117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AD)로 도살 처분 된 닭과 오리 등을 합치면 최근 몇 년 동안 7600만 마리가 땅속에서 묻혀 있다. 여기에 ‘친환경 살충제 달걀’ 포함 4200만 개의 달걀 폐기까지. 식물도 예외는 아니다.  
 1989년부터 재선충에 시달려 1200만 본의 소나무 고사목이 방제됐다. 재선충으로 처분된 소나무 고사목의 3배가량 주변 나무가 제거된다고 보면 지난 29년간 제거된 방제목은 4600만여 본이나 된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일 살벌한 세상이다.

**이 백성이 슬프다.**  
 자살률 특히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을 세계최고, 젊은이들 역시 취직도 결혼도 출산도 주택도 희망을 버려야 하는 3포 5포 7포 세대로 전락, 소득양극화, 세대양극화, 출산율 최저, 낙태율 최고, 이혼증가율 최고, 존속살인율 최고라는 통계로 나타나는 급속한 가족해체, 선진 후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높은 비율의 사기죄, 위증죄, 고소고발 통계로 나타나는 사회 기강 해체, 국가공공기관과 정치(국회)에 대한 목표적 불신, 갈등 선진국. 대학도 많고 교회, 사찰, 병원도 많다. 그러나 대학공장, 종교

공장, 의료공장이지 인성교육, 나를 넘어 남을 봉사하는 종교, 정의의 평화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완성으로 이끄는 시민사회는 없다. 그 결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이라는 망령이 사회통신망에 가득하다.

**이 나라가 위태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핵 위력은 인도나 파키스탄보다 파괴력이 10배 이상 크고, 히로시마 원폭의 5배에 이른다. 단 한 발로 서울을 초토화할 수 있는 핵폭탄이 김정은이라는 인물 손에 들어갔다. 5000만 한 국민이 그의 핵 인질로 잡혔다. 여기 에다 경제는 설상가상이다. 머은 사드 보복으로, 미국은 “한·미 FTA 폐기” 협약으로 국내의 경제는 혼수상태다.  
 땅의 아픔, 백성의 슬픔. 나라의 위태로움을 한방에 끝낼 말세의 일침(一針)이 시급하다. 천의(天醫) 무아진인(無我眞人) 정도령(正道令)만이 시술이 가능한 ‘고요한 아침(我針)’이다. 그래서 ‘지기지피(知己知彼)면 백전불태(百戰不殆)’. 모든 혼란을 치유할 금초는 ‘인강(我)’ 내수에 있었다.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신(冥)’이 아니라, Immortal Valley만의 극약 처방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내 하나님 같등 선진국, 대학도 많고 교회, 사찰, 병원도 많다. 그러나 대학공장, 종교

<b>승리신문</b>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b>광고 및 구독신청</b>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본부재단 032-343-9981~2 전국재단 및 해외재단 연락처

역곡재단 : (032)343-9981-2 수원재단 : (031)236-8465 안성재단 : (031) 673-4635 평택재단 : 010-9261-9974 부산재단 : (051)863-6307 영도재단 : (010)6692-7582	김해재단 : (055)327-2072 대구재단 : (053)474-7900 마산재단 : (055)241-1161 진주재단 : (055)745-9228 진해재단 : (055)544-7464 영천재단 : (054)333-7121	사천재단 : (055)855-4270 포항재단 : (054)291-6867 순천재단 : (061)744-8007 정읍재단 : (063)533-7125 군산재단 : (063)461-3491 대전재단 : (042)522-1560	청주재단 : (043)233-6146 충주재단 : 010-9980-5805 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6142-1738136
--	--	--	---	--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